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음 4월 6일) 제15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앞으로의 전북 관광 내실 다져야 성공한다’

### FOCUS 문광부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전북 관광의 내실 있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여행지 중 여행 만족도 순위에서는 상위권에 속했지만 ‘재방문’과 ‘추천지역’으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04점으로 2014년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1년마다 공표되고 있으며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2,493가구의 만 15세 이상 동거 가구를 6,5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개인여행’ 기준 지역별 만족도 순위를 보면 제주가 4.30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어 전북이 4.15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권에 랭크됐다.

강원은 4.13, 부산 4.12, 광주 4.10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북이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여기까지다.

여행 방문지역과 재방문, 관광여행지로서 타인에게 추천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국민들은 높은

개인여행 만족도 전국 2위 재방문 등은 하위권 그쳐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관광 홍보·전략 수정 절실

골든타임 놓칠 경우 수년내에 외면 받을수도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2015년 2년 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주요 지역에서 전북은 전국 5위권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는 경기와 서울, 충남, 경남, 강원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여행’은 경기와 강원, 충남, 경남, 전남의 순, ‘당일여행’은 경기와 서울, 충남, 경북, 경남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4년의 경우 주로 경기와 서울, 충남, 경남, 강원도 국민 여행지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숙박여행과 당일여행도 이와 일부 순위만 바뀔 뿐 큰 차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전북관광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구여행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구여행에 대해 ‘관광여행 재방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제주가 4.46, 광주 4.10, 강원 4.08 등의 순을 나타냈지만 전북은 4.01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로 전국 평균치(4.01)인 중위권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관광여행 타인 추천 의향’에 대한 물음에도 지난해 가구여행의 경우는 제주가 4.40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경북 4.04, 강원 4.03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은 3.96으로 전체 평균(3.97)보다 낮은 점수로 역시 공동 7위에 그쳤다.

‘전북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외치고 있는 전라도와 전주시 등의 관광 홍보와 전략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관광업 관계자는 “최근 한옥마을 등이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전주시 등이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주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옥마을 등을 포함한 전북 관광지는 수년 내에 관광객의 식상함과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첫 삽’ 정읍시가 11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정읍의 핵심 기반이 될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이하 정읍사 관광지조성사업)’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김생기 시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한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삽을 뜨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 국내 기업 60% “내년도 경제회복 어려울 듯”

경제회복 정책과제로 세제지원이 가장 높아 28% “투자 소폭 확대”

국내 기업들의 60% 이상은 내년까지도 어려운 경제환경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투자·경영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과반이 2018년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4.6%는 “2018년 이후”로 답했다. 또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17.9%를 차지했다. 반면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예상한 답변이 각각 17.0%, 17.4%였고 올해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감세 등 세제지원(29.4%),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27.2%) 등이 꼽혔다. 연구개발(R&D) 지원(10.4%), 환율 안정화(6.3%), 유연한 고용제도 구축(3.6%) 등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

전년 대비 올해 투자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들의 28.4%가 ‘소폭 확대하겠다’고 답했고 ‘대폭 확대하겠다’는

답변도 6.8%를 차지했다. 반면에 ‘소폭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4.3%, ‘대폭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5.4%였다. ‘동일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은 35.1%였다.

투자 확대의 이유로는 신제품 생산 등 신규사업 진출(20.3%), 신성장동력(20.3%) 등이 꼽혔다. 투자 관련 규제 완화(0.9%), R&D 세액공제 확대(0.5%) 등을 꼽은 비율은 낮았다. 투자 축소의 이유로는 내수 부진(27.2%), 세계경제 회복 지연(14.7%) 등을 지목한 반면 통상임금, 노조 등 노사문제 영향(0.9%)을 지목한 곳은 많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매출액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했으며 224개사가 응답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위기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은 단기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감세 등 세제지원 확대,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 투자 관련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쇼핑 식사 영화관람도...

20대 “혼자가 편해요”

10명 중 7명 ‘나홀로족’

최근 20대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홀로 활동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20대 12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7%가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혼자서 쇼핑하는 것이 편하다는 반응이 80.6%, 절반 이상은 홀로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또 주로 혼자 밥을 먹는다는 답변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술을 한 차례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한 20대도 40.3%에 이르렀다.

20대들은 또 취업을 가장 큰 관심사로 꼽았다. 응답자 57.4%는 최근 취업 고민이 가장 크다고 말한 반면 연애에 관심 있다는 답변은 23.4%에 그쳤다.

잡코리아는 “응답자 15% 이상은 1년 이상 취업 재수를 해도 좋다고 반응했다”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답변도 70.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 “육시 가슴기 살균제 독성 실험 필요성 무시”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육시레킷벤키저(육시)가 가슴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험없이 제품 출시를 강행한 단서를 확보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가슴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에 따르면 육시는 ‘육시썩썩 New 가슴기담뱃’의 원료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구매 당시 원료물질 도매사 CD에 PHMG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육시 측이 CD에 실험 결과가 있다고 물은 것이 육시가 실험 필요성을 알면서도 간과했다는 증거 중 하나”라면서 “육시가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한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육시는 1996년 ‘프리벤톨(Preventol) R80’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슴기 살균제를 처음 출시했다. 이후 ‘물 위에 하얀 부유물이 생긴다’ 등의 소비자 불만이 나오자 2000년 원료물질을 바꿨다. 프리벤톨R80은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었다.

이 과정에서 CD가 “갈끔하고 살균력이 좋다”며 PHMG를 원료물질로 육시 측에 추천했다. 이에 육시 측은 “PHMG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있다”고 CD에 문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육시 측은 흡입독성 실험 없이 제품 출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흡입독성 실험 자료를 CD에 요청했던 것이 육시가 가슴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서도 하지 않은 핵심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5월 13일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

신랄한 해학과 풍자의 세계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후원: 전주시
- 품바명인: 서봉식, 이실이, 서봉구, 유달산, 최민
- 초대가수: 정해진, 진국이, 김단아, 진정아, 박인경

▶ 매일 INDEX  
2면 왕궁축사 매입 순환